

韓國農業의 國際競爭力과 農産物 輸出擴大 方案

李 東 琪 · 李 鐘 禹

《目 次》

- | | |
|----------------------------|---------------------|
| I. 서 론 | IV. 한국 농업의 선택과 당면과제 |
| II. UR 농산물 협정에 따른 개방내용과 영향 | 1. 한국농업의 선택 |
| 1. 주요 개방내용 | 2. 수출현황과 당면과제 |
| 2. 개방의 영향 | V. 효율적인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
| III.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 1. 안정적 생산·지속수출기반 구축 |
| 1. 한국농업의 현황 | 2. 고급화와 안전성 제고 |
| 2. 한국 농업의 문제점 | 3. 수출시장의 이해와 진출확대 |
| 3. 한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수준 | 4. 수출종합지원체제의 구축 |
| | VI. 결 론 |

I. 서 론

1986년 9월부터 시작하여 7년여를 끌어오던 우루과이라운드(UR) 다자간 무역협상이 1993년 12월 15일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를 지배하던 GATT 체제는 WTO(세계무역기구)라는 새롭고 강력한 세계무역규범과 질서로 대체되게 되었다.

공산품 위주의 GATT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과 같은 새로운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WTO 체제는 지난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만연된 보호무역주의와 관리무역체제로 변질되어가던 국제교역질서를 다시 자유무역체제로 환원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추구하는 바는 다자간 무역의 공정성 확보와 시장개방의 확대에 요약할 수 있다.

공정한 국제교역과 시장개방의 확대가 강제됨에 따라 향후 국제무역 환경은 「국경없는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教授

** 농수산물 유통공사

*** 本稿는 1990年度 教育部 海外派遣研究教授基金에 의한 研究論文임

세계경제전쟁, 「신 중상주의」, 「경제 제국주의의 본격화」라고 표현되듯 적자생존의 원칙 하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는 무한경쟁시대가 될 것이 확실하고 오직 국제 경쟁력만이 국가생존의 유일한 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개방의 피해와 충격이 예상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농산물 분야의 피해와 충격이 가장 크고 그 영향도 오래 지속될 것이 확실한데 그 이유는 영세생업농적인 취약한 생산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농업이 식량자급을 위한 증산정책과 원천적인 수입제한 정책하에서는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정도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보호될 수 있었으나 시장의 개방으로 이제는 가격, 품질 등 국제경쟁력 정도에 따라서 생존여부가 판가름나는 완전경쟁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국제시장으로 진입하게 되어 수입제한과 보호가 어렵게 되었음에도 한국의 농업 및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낙후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개방으로 저가 외국 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국내 농산물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농업생산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농업부문 취업자의 대폭 감소가 농촌실업으로 이어질 경우 농촌사회의 붕괴와 사회적 불안이 증대될 우려가 있다.

한국농업이 처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농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농업으로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즉 생산구조를 조정하여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지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집중지원하고 시야를 국내에서 세계로 넓혀 해외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농업의 문제점과 국제경쟁력 수준을 파악하고 경쟁력확보와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UR 농산물 협정에 따른 개방내용과 영향

1. 주요 개방내용

UR농산물 협정의 핵심내용은 ① 예외 없는 관세화조치와 관세의 감축 및 시장접근의 보장 ② 국내보조의 감축 ③ 수출보조의 감축 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UR 농산물 협상에서 감축이행기간이 길고 감축율이 작은 개발도상국 우대 적용을 받았고 특히 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함께 특별취급을 받아 관세화를 유예받는 등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기는 하나 쌀을 제외한 전 품목이 관세양허로 개방되었고 시장접근약속물량이 제시되었으며 국

내보조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993년 12월 15일 타결된 UR 농산물 협상에 따라 1994년 3월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를 제출하여 이해관계국과의 협의, 검증을 거쳐 확정된 주요 개방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시장접근 분야에서 한국이 소위 비교역적 품목(NTC)으로 개방을 거부했었던 15개 기초농산물 중 쌀은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되 유예기간 중 시장접근물량은 1995년 51,307톤(1%)에서 2004년에는 205,228톤(4%)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확정되었다. 나머지 14개 품목의 관세양허는 ①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관세화 대상품목은 관세화로 ② BOP 품목 중 고추, 마늘, 양파, 참깨, 탈지분유 등 관세미양허 품목은 한도 양허관세(ceiling binding)로 ③ BOP 품목 중 UR 농산물 협상 이전에 이미 관세를 양허하였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등은 기 양허세율을 다소 높게 조정하여 양허하였다.

한국의 전체 농산물 관세 양허 현황을 보면 UR 농산물 협정 대상품목 1,312 품목 중에서 쌀류 14품목을 제외한 1,298개 품목이 관세양허되었다. 다음 국내보조 감축분야는 감축대상 보조총액이 2조1천93억원으로 이를 10년간(1995~2004년) 35.5%를 감축하여 2004년에는 1조3천5백98억원만을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수출보조 감축분야에서 한국은 기준년도 중에 수출성과와 직접 관련된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수출보조금 감축계획은 이행계획서 상에 반영된 것이 없다.(<표 1, 2> 참조)

2. 개방의 영향

UR 농산물 협정에 따른 시장개방에 따라 시장접근과 관세의 감축, 그리고 국내보조감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외국 농산물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 국산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의 경쟁이 불가피하나 국산 농산물의 생산비 증가 등으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리할 것이 확실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개방 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하락과 생산자 잉여가 크게 감소하여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어 외국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식량자급도가 계속 하락하게 됨으로써(<표 3>) 외국 농산물시장가격의 변동이 국내시장가격에 직접 영향을 미쳐 국내시장에서 가격왜곡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농산물 무역적자의 확대, 농업인구의 감소, 농업성장의 정체 내지 감소 등으로 농업, 농촌전반에 위기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표 1〉 기초농산물 15개 품목 시장개방내용

구 분	관세양허(%)		시장접근 약속물량과 적용세율				이행기간
	감축기준세율	최종양허세율	초기년도		최종년도		
쌀	—	—	51,307톤	5%	205,228톤	5%	1995~2004
보리(쌀보리)	333	399.7	14,150	20	23,582	20	”
콩	541	487	1,032,152	5	1,032,152	5	”
옥수수(사료용)	365	328	6,102,100	3	6,102,100		”
감 자	338	304	11,286	30	18,810	30	”
고구마	428	385	11,121	20	18,535	20	”
고 추	300%또는 6,900원/kg	270%또는 6,210원/kg	4,311	50	7,185	50	”
마 늘	400%또는 2,000원/kg	360%또는 1,800원/kg	8,680	50	14,467	50	”
양 파	150%또는 200원/kg	135%또는 180원/kg	12,369	50	20,645	50	”
참 깨	700%또는 7,400원/kg	630%또는 6,600원/kg	6,731	40	6,731	40	”
오렌지	99	49.5	15,000	50	57,017	50	”
유제품(탈지분유)	220	176	621	20	1,034	20	”
쇠고기	44.5	40	123,000	43.6	225,000	41.6	1995~2000
돼지고기(냉동)	37	25	21,930	25	18,275	25	1995~1997.6
닭고기	35	20	7,700	20	6,500	20	”

자료: 경제기획원, 「국별 이행계획서」, 1994.2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에서 추정 한 자료에 의하면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GNP중 농림수산업 비중은 1992년의 7.6%에서 2001년에는 2.8%로 감소하고 취업자도 16.0%에서 7.9%로, 전체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은 13.1%에서 5.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성장률은 1995년~2001년 평균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표 2〉 UR 농산물 협정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현황

구 분	품목수	주요대상품목
전체품목	1,312	
미양허품목	14	쌀류(벼, 현미, 정미)
관세양허품목	1,298	
—관세화대상품목	111	보리,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수입제한 BOP품목	95	(미양허)고추, 마늘, 양파, 참깨, 탈지분유, 사과 (기양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수입자유화된 품목	1,092	배추, 양배추, 강남콩, 양송이, 고사리

주: HS 10단위 기준임

자료: 농림수산부, 「UR 농산물 이행계획서 검증결과」, 1994. 4

〈표 3〉 농산물 시장 개방 영향 추정

구분	1992	1995	2001
총량지표			
—GNP중 농림수산업 비중(%)	7.6	5.5	2.8
—농림수산업 취업자 비중(%)	16.0	13.1	7.9
—농가인구비중(%)	13.1	10.7	5.1
—농림수산무역적자(억불)	42.6	64.3	130.3
—농업성장률(%)	1.5('88~92평균)	-1.1(전년대비)	0.1('95~2001평균)
주요품목자급율(%)			
—쌀	97.5	96.2	95.9
—보리	83.3	81.1	72.1
—콩	12.2	9.0	2.9
—감자	99.2	83.4	69.5
—쇠고기	43.9	47.3	24.3
—감귤	100.2	98.0	74.0
—참깨	47.7	34.7	11.6
생산자임여감소('95~2001)		77,938억원	
—15개 기초농산물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축산물 시장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993.12

주요품목의 자급을 하락과 15개 기초농산물의 생산자 잉여감소가 약 8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Ⅲ. 한국농업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농업의 현황

1960년대 초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이 공업화 위주로 추진되어 30여년을 지속하는 동안 한국의 농업은 2차, 3차 산업에 비해 크게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농가인구의 대폭 감소 및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경제에서의 비중도 크게 낮아지고 있다. 농가인구는 1970년대에는 14,422천명으로 전체인구의 44.7%를 차지하였으나 1993년에는 5,407천명으로 전체인구의 12.3%로 줄어 들었고 그중 60세 이상의 농민은 7.9%에서 23.4%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표 4>).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의 26.7%에서 1993년에는 7.1%로 줄어들었고 성장률도 1985~1992년 평균성장율이 국가전체는 9.6%인데 비해 농림어업은 0.4%에 그치고 있고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전체 경제성장율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식량 자급도는 80.5%에서 33.9%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표 5>).

불과 30여년만의 농업의 이러한 급격한 「축소」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 내적으로는 생산기반의 취약, 영세한 경영규모와 높은 경영비

<표 4> 농가인구와 농가가구

(단위: 천명, 천가구)

연 도	인 구			가 구		
	전체(A)	농가인구(B)	B/A(%)	전체(A)	농가가구(B)	B/A(%)
1970	32,241	14,422	44.7	5,857	2,483	42.4
1980	38,124	10,827	28.4	7,969	2,155	27.0
1990	42,869	6,661	15.5	11,357	1,767	15.6
1992	43,663	5,707	13.1	—	1,641	—
1993	44,056	5,407	12.3	—	1,592	—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94

〈표 5〉 국민경제와 농림어업의 비중

(단위: 10억원, 백만불, %)

구 분	1970	1980	1990	1992	1993
국민총생산	27,850	36,747	178,262	238,705	263,861
—농림어업	7,385	5,677	15,592	17,806	18,785
(비중: %)	(26.7)	(15.4)	(8.7)	(7.5)	(7.1)
경제성장률	7.6	△3.7	9.5	5.0	5.6
—농림어업	△1.4	△19.1	△4.6	6.0	△2.4
수출	835	17,505	65,016	76,632	82,236
—농림수산물	218	1,930	2,920	2,888	2,760
(비중: %)	(26.1)	(11.0)	(4.5)	(3.8)	(3.4)
수입	1,984	22,292	69,844	81,775	83,800
—농림수산물	469	3,164	5,789	7,147	7,811
(비중: %)	(23.6)	(14.2)	(8.9)	(8.7)	(9.3)
식량자급도	80.5	56.0	43.1	34.1	33.9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1994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1.9

용, 노동력의 부족, 생활수준과 환경여건의 낙후 등으로 농촌이 활력을 잃고 공동화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UR타결에 의한 시장개방으로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농민의 불안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2. 한국 농업의 문제점

이와 같이 대, 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국농업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업구조면에는 토지, 자본, 노동 등 요소비용이 선진국은 물론 경쟁상대국에 비해 크게 높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지가격은 미국의 54배, 프랑스의 21배, 영국의 9배로 매우 높고, 임차농지의 비중 또한 매우 높으며 따라서 생산비중에서 차지하는 토지용역비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 이러한 것들이 높은 생산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7, 8〉).

자본비용은 최근 선진국 등의 고금리 추세로 그 격차가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1994년 8월말 프라임레이트를 기준으로 볼 때 일본 3.0%, 미국, 홍콩 7.75%, 대만 7.63% 등

〈표 6〉 농지가격 비교

(단위: 원)

구 분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평당가격	18,400	340	870	1,990	38,300
비교(한국: 100)	100	1.8	4.7	10.8	208.2

자료: 농정연구포럼, 「농지제도의 개선방향」, 1993. 9

〈표 7〉 임차농지 비중 비교

(단위: %)

한국		일본	대만	미국
1984	1987	1993	1992	1992
28.3	31.1	39.4	9.4	4.8
				11.5

자료: 상동

〈표 8〉 쌀 생산비중 토지용역비 비중(1992)

(단위: %)

한국	일본	미국
43.1	17.4	14.0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3

〈표 9〉 임금수준 비교(1989~1993)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국
임금상승율	17.8	3.1	11.2	12.5	10.4	13.4
임금코스트	5.0	2.0	3.8	2.0	5.1	-3.1

주: 임금코스트 = 명목임금지수/노동생산성지수

자료: 무역협회

인테 비해 한국은 12~13%로 거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노동비용에 있어서는 임금상승율이 1989~1993년 연평균 17.8%가 상승하여 일본 3.1%,

대만 11.2%, 중국 13.4% 등 경쟁 상대국보다 월등히 높고 단위당 임금비용 또한 크게 높은 수준이다(〈표 9〉).

주요국의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을 100으로 했을 경우 58에 그치고 있고 미국 136, 캐나다 123, 프랑스 118, 호주 103, 영국 97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표 10〉).

다음 생산기반면에서 볼 때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경지경리, 수리시설등이 미비되어 있으며 기계화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가 호당경지면적은 한국이 1.3ha로 미국의 190ha, 영국의 69ha, 덴마크 32ha에 비하여 영세하며 가경지 1ha당 농업인구를 보더라도 매우 열악한 조건에 있다.

또 선진국은 경지정리, 수리시설등 기반정리가 완료된 상태이나 한국은 경지정리율이 약 51%에 그치고 있고, 수리답은 외형상 75%에 이르고 있으나 실제 10년 빈도 한발에 용수가 가능한 것은 약 30%에 불과한 실정이며 벼 농사 기계화율도 통계상 91%이나 건조, 수확 등이 낮은 수준에 있고 필지 규모의 소규모등으로 작업효율이 낮으며 원예, 축산분야의 기계화는 초기 단계에 있다(〈표 12〉).

영농구조에서 보면 농가소득이 농업소득, 그 중에서도 쌀농사 소득에 크게 의존하는 구

〈표 10〉 노동생산성 국제비교(1992)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영국
58	100	136	123	118	103	97

주: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각국의 생산성지수임

자료: 일본 사회경제 생산성본부, 「'92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 1994

〈표 11〉 영농규모의 국제비교

(단위: ha, 명)

구 분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일본
농가호당 경지면적	1.3	190	302	31	69	32	1.4
가경지 1ha당 농가인구	4.7	—	1.4	0.2	0.2	0.1	1.7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주요통계」, 1993

FAO 한국지부, 「세계식량농업백서」, 1992

조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 1993년의 경우 농가 호당 쌀 소득은 3,439천원으로 농가소득의 20.3%, 농업소득의 40.8%를 차지하고 있어 같은 쌀 주식권인 일본의 5.7%, 32.2% 보다 월등히 높다.

또한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의 비중은 29.8%(1993년)로 일본의 79.4%(1992), 대만 64.8%(1990년) 보다 너무 낮아 농외 소득개발이 시급하다(〈표 13〉).

다음 제도와 정책면에서 볼 때 농지제도의 경우 경자유전 원칙 하에 농지 소유를 경작 농민에 국한시켜 제한함으로써 능력과 의욕있는 주체의 농업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소유 상한규제로 전통적 소농 보호에 치중하여 자급자족적 영세생업농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양정제도도 식량안보 문제로 주곡증산과 자급 및 가격지지에 중점을 둬으로써 과잉재고, 양특적자의 누증에 의한 막대한 재정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생산농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원방식도 주요부문에 대한 선택적 중점지원이 아닌 형평적 배분지원이 됨으로써 경쟁과 효율 그리고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경쟁력 약화의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농업에 대한 농민의 의식도 도농간 소득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만, 시장개방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농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깊은 것으로 보인다. 1992년도에 전국농민의 의식을 조사한 한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가 직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해 장래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표 14〉).

또한 정부가 다음세대의 농업유지, 발전의 보루로 육성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에 대한 조사에서도 11.7%가 농사를 그만 두거나 농촌을 떠날 생각을 갖고 있고 그

〈표 12〉 농업기반 실태(1993년)

구 분		비 고
경지 정리율(논)	51.0%	논면적 1,298천ha, 수리답 975천ha 논면적 1,298천ha, 경지정리 662천ha
수리답 율	75.1%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4.

〈표 13〉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

(단위: %)

한국(1993)	일본(1992)	대만(1990)
29.8	79.4	64.8

이유는 대부분(67.2%)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소득감소우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우리나라 농업발전 전망에 대해 「퇴보 또는 피폐화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16.2%로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예측(7.9)보다 훨씬 높았다(1994.1~2월 전국 농어민 후계자, 전업농 조사, 농림수산부). 마찬가지로 최근 농진청의 전농가 대상 경영조사에서도 농가의 25.6%가 여건이 허락하면 농사를 포기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수준

그러면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살펴보기로 한다. 국제경쟁력 수준을 비교하는 척도로는 가격, 품질, 사람, 소득수준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접근하기 쉽고 비교적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을 비교해보면 주요 품목 대부분이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에서 수입된 주요품목의 수입가격과 국내 도매가격을 비교할 때 참깨의 경우 국내산이 외국산의 약 12배, 녹두의 경우 약 8.5배, 콩의 경우 약 7.7배에 이르는 등 수입 농산물 거의 대부분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한국 농업의 선택과 당면과제

1. 한국농업의 선택

UR 협상 타결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한국의 농업도 종전처럼 수입제한 등 보호조치에 의해 연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시장에서 외국농산물과 경쟁하여 살아 남아야 하고 적극적으로는 해외시

<표 14> 농업에 대한 농민의 인식조사결과

(단위: %)

구 분	아주	약간	그저	별로	전혀	합계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아니다	아니다	
농업은 직업으로서 장래성이 있다.	2.4	10.6	10.9	41.7	34.4	100.0
정부농업정책은 농업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1.7	10.4	20.4	38.0	100.1	100.0

자료: 김인철 외,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 1992.

〈표 15〉 주요 품목별 가격경쟁력 비교

(단위: 원/kg)

품 목	수입가격(A)	국내도매가격(B)	B/A(배)
쌀	322	1,278	4.0
콩(식용)	214	1,654	7.7
팥	689	2,014	2.9
녹 두	415	3,548	8.5
감 자	256	437	1.7
고추(건)	1,457	8,069	5.5
참 깨	438	5,246	12.0
마 늘	440	1,370	3.1
땅 콩	538	2,278	4.2
양 파	478	319	0.7

주: 1. 수입가격은 '93년 수입 평균가격(단 감자, 고추는 '92년 수입평균가격임)

쌀의 수입가격은 美 자포니카계 평균수출가격임('93)임

2. 국내 도매가격은 중품, 전국평균가격('93)임

자료: 무역통계, 농수산물 유통조사 월보

장에 진출하여 이겨야 하는 것이다.

한국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 기계영농 등을 통한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 첨단기술농업화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고 농업에 대한 농민들의 인식이 미래지향적으로 전환되고 정부정책이 생산위주에서, 유통, 마케팅 중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생산요소의 불리성과 이의 단기간 극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모든 품목의 규모화와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곡 등 일부품목은 적정자급율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품목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수출확대 방안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농업과 농업의 수출산업화가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도 있으나 반면 외국의 수입장벽도 낮아지게 되어 한국 농산물의 수출가능성도 커지는 등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실의에 빠진 농민에게 희망과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 이미 국경의 개념이 사라진 국제무역시대에서 해외시장은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할 뿐더러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급속한 질적향상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다

는 점, 셋째 수출시장의 확대를 통해 기초산업으로서 여러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농업의 크기를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한국의 농산물 중에는 적절한 기후조건으로 맛이 뛰어난 사과, 배 등의 품목이 있고 개발여하에 따라 수출 잠재력이 많기 때문이다.

2. 수출현황과 당면과제

한국의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을 보면 수출은 1989년 3,132백만불에서 1991년 2,986백만불, 1993년 2,760백만불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며 1989~1993년 5개년간 국가전체 수출은 연평균 5.8% 증가하였는데 비해 농수산물 수출은 연평균 2.6%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은 1989년 5,485백만불에서 1993년도에는 7,811백만불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농수산물 수출입에 따른 수지는 1989년의 2,353백만불 적자에서 1993년에는 5,051백만불 적자로 크게 늘어나 1993년 국가전체 무역수지 적자인 1,564백만불의 무려 323%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품목 구성을 보면 수산물이 반이상(54.2%)을 차지하고 있고 농축산물 수출은 29%인 8억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표 16〉).

주요 수출국의 비중은 일본이 약 68%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외 미국(7%), EU(5%), 홍콩(5%)등의 순이다.

주요 수입국은 미국(25%), 중국(14%), 인도네시아(9%)와 말레이시아, EU, 호주 등이고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표 17〉).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 농수산물 수출은 정체 내지 감소추세에 있는데 그 주요 요인은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 및 물량이 부족한 점, 중국등이 경쟁시장에 저가로 진출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상실하여 기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점, 품질향상 노력 미흡으로 저가품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출시장 및 소비자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보가 미흡한 점, 수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더러 수출지원이 미약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점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당면의 과제라 할 수 있다(〈표 18〉).

V. 효율적인 농산물 수출확대 방안

1. 안정적 생산·지속수출기반 구축

가. 수출용 작물의 재배면적 확보

한국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수출할 수

〈표 16〉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농수산물				국가전체	
	계	농·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1989	수 출	3,132	781	661	1,690	62,377
	수 입	5,485	3,652	1,511	322	61,465
	수 지	(2,353)	(2,871)	(850)	1,368	912
1990	수 출	2,920	795	610	1,515	65,016
	수 입	5,789	3,754	1,665	370	69,844
	수 지	(2,869)	(2,959)	(1,055)	1,145	(4,828)
1991	수 출	2,986	756	587	1,643	71,870
	수 입	6,923	4,398	1,948	577	81,525
	수 지	(3,937)	(3,642)	(1,361)	1,066	(9,655)
1992	수 출	2,888	800	570	1,518	76,632
	수 입	7,147	4,767	1,873	507	81,775
	수 지	(4,259)	(3,967)	(1,303)	1,011	(5,143)
1993	수 출	2,760	810	454	1,496	82,236
	수 입	7,811	4,571	2,698	542	83,800
	수 지	(5,051)	(3,761)	(2,244)	954	(1,564)

주: 괄호는 적자(-)를 표시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주요통계」, 1994

있는 물량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은 국내작황에 따른 일시적인 잉여분 수출, 그리고 수출경기에 편승한 영세, 비전문업자의 일시적 수출이 많고 따라서 수출계약후 국내가격이 오르며 수출계약을 파기하는 등 수출용 물량의 안정적 공급부족에 기인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제신용 상실로 보이지 않는 손실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농업의 쌀 중심 영농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쌀이 지니는 정치, 사회적 중요성과 한국의 특수한 사정, 그리고 환경, 생태계 유지, 보존상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에 비해 4배나 비싸고 타 작물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며(표 18), 과도한 재고 보유 및 2중곡가제에 따라 엄청난 국민부담이 누적(표19~21)되고 있는 쌀의 생산을 위해 전체경지이용면적의 49.7%가 투입되고 전체

〈표 17〉 한국산 농수산물 주요 수출, 수입국 현황

(단위: 백만불)

		수 출			수 입				
		1991	1992	1993			1991	1992	1993
합	계	2,986	2,888	2,760	합	계	6,923	7,147	7,811
일	본	1,934	1,970	1,872	미	국	2,054	2,107	1,937
미	국	209	189	195	중	국	823	1,080	1,055
E	U	200	183	142	말레이시아		695	620	706
홍	콩	186	178	150	인도네시아		468	480	715
대	만	87	70	46	E	U	345	321	617
기	타	370	298	355	기	타	2,528	2,539	2,781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 주요통계」, 1994

〈표 18〉 주요작물의 수익성비교

(단위: 천원/10ha)

쌀	축산물	노지채소	과수	시설채소	화훼류
438	606	894	1,531	2,828	7,063
(100)	(138.4)	(204.1)	(349.5)	(645.7)	(1,612.6)

자료: 농진청, 「'93 농축산물 표준소득」, 1994.10

농가의 67.4%가 종사하여(〈표 22〉) UR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생산보조에 의해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쌀 생산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생산구조와 시장경제 메카니즘과 유리된 유통구조로는 경쟁력만이 요구되는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소득증가에 따른 쌀 수요의 급속한 감소와 농업인구의 감소라는 불가역적 추세도 거스를 수 없다.

한국 농업이 국제화, 개방화에 순응하고 수출농업을 통해 농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국제분업과 비교우위원리에 입각한 전문화의 방향으로 농업생산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국토면적의 21%에 불과한 경지면적(2,055천ha)의 작목별 배분이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가장 효율화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는 쌀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적정 쌀 생산에 필요한 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수출용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토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표 19〉 쌀 생산 및 정부재고 추이

(단위: 천석)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생산(A)	38,145	42,038	40,958	38,932	37,390	37,023
정부재고(B)	7,368	8,772	13,130	14,210	13,267	12,776
B/A(%)	(19.3)	(20.9)	(32.1)	(36.5)	(35.5)	(34.5)

자료: 농림수산부

〈표 20〉 양곡관리 특별회계기금 결손내역

(단위: 억원)

1970~1990	1991	1992	1993	누계	재정보전	보전후결손
44,774	10,560	13,812	18,389	87,535	55,944	31,591

자료: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주요통계」, 1994

〈표 21〉 양곡증권 발행내역

(단위: 억원)

1975~1989	1990	1991	1992	1993	잔액('94.8)
91,800	26,420	28,500	34,093	50,585	65,029

자료: 상동

〈표 22〉 쌀의 재배면적과 농가호수

구 분	전체(A)	쌀(B)	B/A(%)
경지이용면적(ha)	2,285	1,136	49.7
농가호수(천호)	1,641	1,106	67.4

자료: 농림수산부, 「농업기본통계」, 1993

현재의 여건과 향후추세를 감안하여 추정해볼때 2004년까지 약 279천ha의 논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 및 연구기관에서는 2004년의 인구를 48,380천명, 1인당 쌀 소비량은 84.3kg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때 2004년의 식량용 쌀수요는 4,078천톤, 가공용등을 감안한 총 수요는 4,578천톤으로 추정된다. 공급은 시장개방에

〈표 23〉 쌀 수급전망

구 분		1993	2004
수요량	천톤	5,509	4,578
—식량용	”	4,855	4,078
—가공용	”	654	500
—1인당 소비량	kg	110.2	84.3
공급량	천톤	5,331	4,578
—MMA	”	—	205
—국내생산	”	5,331	4,373
자급율	%	96.8	95.5
10a당 생산량	kg	460	510
재배면적	천ha	1,136	857

다른 최소시장접근물량(MMA) 205천톤을 제외한 4,373천톤을 국내생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단위당 생산량 510kg(10a당)을 기준할 때 약 857천ha의 논이 소요된다. 따라서 1993년의 쌀 재배면적 1,136천ha에서 279천ha의 논이 전환가능하게 된다.

전환가능한 면적인 279천ha는 1993년 원예작물(시설채소, 과수, 화훼) 총 재배면적 220천ha 보다도 넓어 상당기간 수출용 작물의 안정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규모이다. 다음 전환 대상지역은 수출용 작물의 재배적지에 따라 일부 변화가 있겠으나 가능하면 농업진흥지역밖을 대상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생산과 수요가 크게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기계화를 위해 경지정리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밭에 대한 경지정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므로는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사업이 밭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2) 수출용 작물의 개발과 설정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대외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수출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수출전략 품목의 선정요건으로는 일반적으로 가격과 품질경쟁력 여부, 수출잠재력과 성장성, 환경에의 영향 등을 들 수 있으나 이에는 2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는 사과, 배와 같이 한국의 자연, 기후조건 등에 의해 품질이 우수하고 그 자체로

서 경쟁력이 있는 한국형 작목을 계속해서 개발하여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 수입국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 품종을 도입하여 개량, 수출하여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다. 일본 시장을 전제로 한다면 수출작물의 선정은 ① 일본내 생산감소로 자급율이 감소되고 따라서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 ② 지리적 근접성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송이 어렵고 저장성이 약하며 신선도 유지가 절대적인 품목 ③ 한국의 농업구조와 관련, 토지 절약적 생산이 가능한 품목 ④ 지속적 수출이 가능한 품목이 유망한데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품목으로는 신선채소류, 화훼류 및 과일류가 해당된다. 일본의 주요 농축산물 자급율 추이를 보면 채소, 과일, 육류 등의 자급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표 24, 25〉). 과일, 채소의 경우 노동집약적 작목이므로 일본 국내 생산기술의 획기적 향상이 없는 한 생산량 감소로 자급율은 계속 감소하고 따라서 수입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한국으로서는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3) 재배개선

수출전략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재배적지, 재배규모, 재배형태, 시설, 재배품종의 선택과 보급, 재배시기와 수확시기, 재배농가선정, 재배토지의 공급과 관리, 연차별 생산 출하계획, 자금지원 등에 관하여 정부, 농민, 관련기관간에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재배지역은 기후, 자연 여건에 따라 재배작목의 자연스런 집중화를 유도하여 생산조절, 출하 및 재배기술의 축적과 전파가 용이하고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하되 과거와 같은 획일적, 지방배분적인 집단화를 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24〉 일본의 주요 농축산물 자급율 추이

(단위: %)

구 분	1960	1970	1980	1990
쌀	102	106	100	100
두 류	44	13	7	8
야 채	100	99	97	91
과 실	100	84	81	63
육 류	93	89	80	70
어개류	110	108	104	86
해조류	92	91	74	72

자료: 농림수산성, 「식료수급표」, 1992.

〈표 25〉 일본의 주요 농축산물 수입구조 변화

(단위: 백만불)

구 분	1980(A)	1990(B)	B/A(%)
농산물	15,665	21,771	139.0
—곡물, 그 제품	4,921	4,926	100.1
—과실, 그 제품	931	2,388	256.5
—채소, 그 제품	532	1,637	300.7
—기호식품	1,207	1,339	110.9
—식물성유지	4,249	2,716	111.8
—담배	419	1,607	383.5
—기타 식음료	645	2,507	388.7
—기타	4,581	4,651	101.5
축산물	3,897	9,189	235.8

자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통계」

선정품목의 재배형태는 고소득이 가능하고 성장 잠재력이 크며 생산시기 조절이 가능할 뿐더러 단위 생산성이 높은 시설원예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소류의 노지재배와 시설재배(주로 비닐하우스)의 단위 생산성을 비교해보면 오이의 경우 시설재배의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그러나 한국의 시설원예 농업은 재배면적과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표 27〉), 재배시설이 낙후되어 과학적인 첨단 생산시설은 거의 없고, 비닐하우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배 및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력의 과다소요로 생산성과 품질이 낮으며 기술축적이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탁월한 선진 첨단시설을 연구하여 한국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이 관계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델란드의 경우 첨단 유리온실에서 화훼, 토마토, 오이 등을 생산하여 그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데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시범적으로 도입, 설치한 네델란드의 첨단 유리온실은 첨단 생산시설의 활용가능성과 기술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예라고 할 수 있다.

4) 기타

앞으로 수출용 작물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시설개선이 이루어지면 일부 품목의 경우 과일생산이 예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목별 수급판단에 따라 계약재배 및 수매를 정착시켜 사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시장의 수급변동 등으로 수출가격이 하락

〈표 26〉 주요 채소류의 단위 비교

단위: kg/10a

구분	노지재배(A)	시설재배(B)	B/A(%)	구분	노지재배(A)	시설재배(B)	B/A
수박	2.137	2.845	133.1	봄 무	2.986	3.041	101.8
참외	1.745	2.831	162.2	당근	2.363	2.244	95.8
오이	2.535	4.790	190.0	상추	1.764	2.185	123.9
호박	1.801	2.584	143.5	시금치	1.314	1.552	118.1
토마토	3.076	4.325	140.6	양배추	3.770	3.699	98.1
딸기	1.245	2.131	171.2	샐러리	2.799	2.854	102.0
가지	1.842	2.303	125.0	꽃양배추	1.892	2.933	155
파	2.603	2.529	97.2	파세리	1.906	2.263	118.7

자료: 농림수산부, 「93 채소생산실적」, 1994.

〈표 27〉 시설원에 재배면적과 비중

(단위: ha)

구분	1980	1985	1990	1993	
채소	전체	377.142	365.815	316.604	378.318
	시설	17.890	28.588	39.994	59.888
	(%)	(4.7)	(7.8)	(12.6)	(15.8)
화훼	전체	1.280	2.169	3.503	—
	시설	180	571	1.752	—
	(%)	(14.1)	(26.3)	(50.0)	—

자료: 농림수산부, 「93 채소 생산실적」, 1994.

〈표 28〉 비닐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시설장소	시설방법		시설유형		피복재료		온도조절		
	고정식	이동식	단동	연동	P.E	기타(유리)	보온	가온	
논	23.9	38.3	61.7	85.9	14.1	78.1	21.9(0.02)	86.4	13.5

자료: 상동

하여 수출업체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을 보상하는 농산물 수출보험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수혜범위의 확대, 보험요율의 인하 등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와 작물보험제도도 발전시켜 수출용 작물의 생산농민이 생산 및 품질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 앞으로의 농업은 유전공학, 미생물학, 생명공학, 육종학, 기상학, 기계공학 등 각종 첨단과학기술이 동원되는 하이테크 산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첨단과학 기술의 도입, 응용 및 활용이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식물의 유전자를 변환하여 맛을 향상시키고 병충해, 추위 등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유전공학 기술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안전성 검증이 끝난다면 농산물의 생산과 경쟁력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도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우수한 품종의 개발연구, 그리고 이의 보급에 연구기관, 정부, 농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2. 고급화와 안전성 제고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은 우수한 종자 및 재배기술을 통한 품목자체의 우수성과 안전성, 그리고 수확이후 얼마나 고도의 그리고 정성을 들인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상품성을 높였느냐에 달려있다. 한국 농산물이 해외시장에서 중국 등의 저가공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급화를 통한 제품차별화와 안전성 제고가 시급하며 저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고급화, 안전성은 가장 중요한 경쟁무기가 된다.

1) 수확 후 처리와 저장관리

농산물은 수확순간부터 자체호흡, 미생물 작용 등에 의하여 변질이 진행되므로 신선도가 생명인 과일, 채소 등은 수확 즉시 예냉하여 초기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재배단지에 예냉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냉 처리는 저장유통기간을 크게 늘리고 부가가치를 향상시킨다.

또한 모든 농산물은 품목마다 최적의 저장조건 및 저장가능기간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품질저하에 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정보는 재배농민에게 전파하여 실제재배에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선별(규격화, 등급화) 및 포장

선별을 통한 규격화, 등급화는 국제거래의 기초이고 필수이나 한국농산물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한데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품질의 일관성이 경쟁국

〈표 29〉 주요 작물의 예냉처리 효과—저장유통기간과 부가가치

작 목	관 행	예 냉	부가가치 향상
결구상추	4일	16일	38%
시금치	4"	48"	37"
배추	14"	50"	35"
딸기	3"	6"	36"
토마토	14"	18"	48"
오이	6"	14"	32"
표고	4"	30"	12"

자료: 농촌진흥청

인 중국에 비해서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별에는 크기, 모양 뿐만 아니라 색깔, 종류, 산지 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꽃의 경우 개화정도, 무게 및 길이가 일정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해외시장에서 규격화, 등급화가 안된 것은 아예 상품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농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아울러 산지에 기계화된 선별장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규격의 설정, 분석 및 관리를 담당하는 공인기관을 육성하여 국제적 신뢰를 얻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포장은 상품의 품격을 나타내는 문화이다. 장기간 유통에 견디고 품목별로 적합한 포장재료와 포장방법의 선택과 관련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수입국의 포장규격과 다른 우리 편한대로의 규격을 정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것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최근 주요 수입국의 농산물 포장 경향이 한 눈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개방식 포장 또는 깊이가 얇은 상자 등을 사용하는 점 등을 감안한 포장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류비용절감, 기술 축적 등이 용이하도록 산지에 포장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디자인, 상표, 표시

산업디자인은 생산기술 못지 않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단기간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농산물의 경우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한국 경제발전을 위한 3가지 기본조건으로 새로운 기술개발, 기술투자를 위한 자본비축과 함께 새로운 산업디자인 개발을 제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디자인 수준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약 40~50% 수준이고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 상대국의 70~8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로 분석되고 있다. 디자인 수준에 대한 지표의 하나인 자가브랜드 보유율을 보면 기업 자체개발이 20%에 불과하고 OEM 50%, 해외도입 9%, 모방이 21%이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더욱 떨어져 자체개발 자가 브랜드가 5% 미만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표 30〉).

이제부터라도 디자인이 제품모양이나 색채를 변경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디자인 자체가 자산이고 품질이며 경쟁력이고 고객의 만족을 이루는 비결로 인식해야 한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산업디자인은 기술개발과 함께 경쟁력을 제고하는 2가지 핵심인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디자인의 개선이 수출확대에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따라서 디자인 및 상표개발에 대한 인식전환과 아울러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은 품목별, 산지별, 또는 생산단지별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여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쌓는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식품의 표시도 외국의 소비자 중심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등이 새로운 영양 표시를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대부분이 식품구입자가 표시된 영양분석표를 자세히 살펴본다는 조사결과는 식품표시도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4) 안전성 확보

다음 농산물의 고급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위생과 안전성의 확보이다. 소비자들은 특히 외국의 수입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요구가 매우 강하다.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본 소비자들이 수입식품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써 야채의 경우 잔류 농약, 수확 후 처리문제, 방사능 함유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야채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로는 안전성이 가장 높았다(〈표 31〉).

지금까지 일본에 수출한 농산물의 검역시 안전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것은 주로 병충해인데 병충해로 검역에 불합격된 경우 대부분은 훈증을 하게 되므로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의 품위 손상으로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따라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 밖에

〈표 30〉 산업 디자인 수준 비교

한국	일본	미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100	257	235	143	128	121

주: 한국 = 100으로 기준

자료: 산업디자인 포장 개발원

〈표 31〉 야채에 대해 알고 싶은 정보

(단위: %)

안전성	선도유지	조리방법	영양가	가격동향	생산현황	재배방법
75.4	48.5	44.6	38.4	26.3	20.3	16.0

주: 3가지 이상 응답

자료: 농림수산성, 「야채의 소비에 대하여」

없는 것이다. 농산물 수출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정하고 공해없는 농산물을 생산하려는 재배단계에서의 사전관리가 중요하고 다음 수출 전에 면역학적 방법, 원적외선 방법 등을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 설비와 능력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의 자체검사와 안전대책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례로 미국에서 일본에 돈육을 수출하면서 FDA(식품의약품), EPA(환경보호청), USDA(농무성) 등 3개 기관이 상호 분담 및 협력하여 검사 및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공적관리 시스템과 미국 돈육생산농가들이 생산단계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공동관리함으로써 안전에 대해 원천적으로 대처하는 사적관리 제도(PQA Program)를 도입하여 우리실정에 맞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3. 수출시장의 이해와 진출확대

한국농산물의 주 수출시장인 일본은 1억 2천 4백만명의 충분한 구매력을 갖춘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서 한국과 비슷한 농업인구 감소, 경작지 감소 및 휴경지 증가, 고령화 등으로 농작물의 자급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농산물 특성상 근거리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아시아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1990년 27%에서 1992년에는 29.3%로 증가하고 있는 바 한국은 일본의 최인접국으로서 동일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어 신선도가 요구되는 야채, 과일, 화훼 등의 수출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중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런 저품위-중품위-고품위 농산물 생산 유통구조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 비해 여건이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덴마크, 대만 등이 많은 대일 수출을 하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고 또한 100만명에 이르는 재일교포가 있어 한국 농산물에 대한 두터운 수요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점이 많다. 이러한 일본 시장은 한국 농수산

물 총 수출액의 약 68%를 차지하는 최대의 수출시장으로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은 매우 미미한데 1993년 일본의 농산물 총 수입액 61,346백만달러 중 한국 농산물은 3.1%인 1,872백만달러에 불과하고 더우기 수출금액과 시장점유율 모두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다(〈표 32〉).

농산물의 대일수출이 수년째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분석해 볼 때 우리는 일본시장을 한국과 식문화와 식관습이 비슷하고 따라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한국과 다른점을 몇가지만 살펴보면 일본인들은 미적 선호경향이 화려한 색깔과 섬세한 모양을 갖춘 인공미를 선호하는 경향이고 큰 것보다는 작으면서 아름다운 것을 더 선호한다. 상품선택에 있어서는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하고 있고 상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선 디자인, 포장 등 외관을 중시한다. 시각의 문화인 것이다. 식관습면에서 보면 맛에 대해 섬세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미식화 경향이 있고 과소비와 낭비가 적으며 절제한다.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전문가를 추구하고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며 작은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이러한 점을 외국산에도 요구한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것, 신기한 것, 그리고 최고에 대하여 추구하고 탐구하며 이러한 것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상대방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한다.

한국 농산물의 대일 수출이 정체 내지 부진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러한 일본인, 일본시장에 대한 특성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너무 쉽게 접근하는데 있다. 예를 들어 오이의

〈표 32〉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현황

(단위: 백만불)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국가전체수입(A)	210,847	234,799	236,737	233,021	240,670
농수산물수입(B)	51,097	50,210	52,728	55,952	61,346
(B/A: %)	(24.2)	(21.4)	(22.3)	(24.0)	(25.5)
—농축산물	29,668	28,885	30,044	31,830	32,131
—수산물	10,548	11,128	12,522	13,254	14,665
—임산물	10,880	10,196	10,162	10,867	14,551
한국산농수산물수입(C)		1,950	1,934	1,970	1,872
(C/B: %)		(3.9)	(3.7)	(3.5)	(3.1)

주: 한국산 농수산물 수입은 한국의 수출액을 표기함.

자료: 일본 무역통계연보

경우 일본은 품위, 길이, 무게, 포장용기의 크기, 재질, 포장방법, 표시사항 등 표준 출하규격이 자세하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생산에 있어서도 가공용보다 생식용을 주로 생산하고 있어 육질이 가장 부드럽고 저작감이 좋은 작은 규격(S)에서 주로 수확하며 표 33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격도 길이가 크거나 무거울수록 떨어지는데 반해 한국은 상대적으로 큰 규격의 오이(평균 150g)를 생산, 수확하고 있고 가격도 크기가 작은 것이 높지 않다. 이와 같이 규격과 소비자의 기호가 상이함에도 한국의 생산농가는 한국식으로 생산하여 수출함으로써 일본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표 33, 34〉).

따라서 일본시장에의 진출을 확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본인과 일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에 철저하게 부응하여야 한다. 품목별로 수출규격을 제정하고 이를 가능한 한 일본의 출하규격에 맞추며 그들의 기호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돈육의 대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인들의 건강화 및 미식화 추구 경향에 맞추어 저지방, 저콜레스테롤, 저칼로리면서 맛도 향상된 돈육을 개발하여 수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돼지도 1950년대에 사육되던 돼지보다 지방이 약 50% 감소된 날씬한 품종의 돼지로 개량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돈육중에서도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부위인 로스, 등심을 중심으로 수출하여 지방제거에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절약토록 함으로써 일본의 수퍼마

〈표 33〉 오이의 규격별 도매시장 경락가격

규격	2S	S	M	L	2L
가격(엔/kg)	302	319	305	268	124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제16권 제3호, 1993.

〈표 34〉 오이 표준출하규격 비교

일 본		한 국	
길이(cm)	중량(g)	품위	포장단위
2L	23~	120	표준거래단위 10kg, 15kg, 20kg
L	21~23	100~120	
M	19~21	80~100	
S	16~19	65~80	
		A: 굴곡 2cm이내 B: 굴곡 4cm이내	5kg (10kg)

자료: 농수산물 유통공사, 「일본의 농수산물 수출시장」, 1993.

〈표 35〉 일본이 수입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비교(1991)

(단위: 엔/kg)

구 분	평균	한국산	최고가가격(A) 최저가격(B)		A/B(배)		
	수입가격	수입가격	가격	국가	가격	국가	
절화류(신선)	1,224	1,320	2,607	네덜란드	349	대만	7.5
양파(신선·냉장)	54	76	76	한국	41	미국	1.8
양배추(〃)	170	84	1,081	이탈리아	74	태국	14.6
당근(〃)	71	148	151	미국	67	중국	2.2
오이(〃)		260	260	한국	—	—	
송이버섯(〃)	10,387	25,238	25,238	〃	4,326	프랑스	5.8
호박(〃)	108	109	124	멕시코	101	뉴질랜드	1.2
시금치(〃)	128	166	179	대만	106	중국	1.7
냉동기타채소	213	770	770	한국	146	〃	5.3
기타채소(일시보존처리)	139	238	259	북한	132	태국	2.0
밤(신선·건조)	327	761	761	한국	145	북한	5.2
딸기(가당·냉동)	215	225	231	미국	153	칠레	1.5
감(건조)	216	1,182	1,182	한국	213	중국	5.5
기타전분	190	1,113	1,113	〃	91	태국	12.2
백삼	5,394	8,932	8,932	〃	4,136	중국	2.1

자료: 일본대장성, 「무역통계」

켓, 소매점에서 큰 인기를 끌고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수입국 시장 및 소비자의 기호, 경향 및 요구에 부응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또 일본시장에의 수출을 확대하고 저가농산물과의 차별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시장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최고가와 최저가의 가격진폭이 양배추의 경우 14.6배에 이르는 등 매우 크며 한국 농산물이 일본시장에서 최고가를 받는 품목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어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수출종합지원체제의 구축

지금까지의 농산물 수출지원은 공산품의 수출지원에 비해 매우 미약할 뿐 아니라 전담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여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 유통공사, 생산자 단체인 협동조합, 각 지방자치단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은행 등이 단편적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 따

라서 지원업무가 체계화되지 못하고 업무의 대기화로 인한 비능률, 업무중복 및 협조부재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수출업체 및 농민에게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36〉).

따라서 분산되고 비효율적인 농산물 수출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출전담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더구나 수출을 통하여 농업과 농민을 살려야 할 현 시점에서 정보와 시장교섭력, 경험 및 자금 등이 부족한 농민과 영세한 수출업체를 강력한 수출조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수출전담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지정된 수출전담기관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제도, 인력 및 자금 등이 뒷받침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첫째, 농산물 수출입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농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은 물론, 수출대상지역의 문화, 관습에 능통하고 국제감각과 교섭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은 국제화시대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은 아직 이런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설, 자금 등 여러가지 여건이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 종합정보수집, 분산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국내 및 해외시장의 각종 정보를 신속

〈표 36〉 농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지원제도 비교

구 분	공산품	농산물
수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금융의 80% 지원 —융자비율: 90% —이율: 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산품과 동일조건이나 상품의 특수성으로 가공식품등 일부만 활용
특별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류: 중소기업 특별자금등 —품목: 전품목지원 —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간: 2~5년 —이율: 연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류: 농안기금 중 수출촉진자금 —품목: 일부 품목만 지원 —용도: 수출용 구매자금 —기간: 1년 이내 —이율: 연 5%
제도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망중소기업 발굴육성 —금융 및 세제지원 —중견수출업체 발굴·육성 —수출공단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시장개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절단 파견 및 지원 —각종 박람회 개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미미함 —해당사항 미미함

자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1993.

히 수집할 정보망을 구축하고 현재 여러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를 종합하여 단일채널을 통해 전파, 배분함으로써 농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정보의 수집, 가공, 분산 외에 해외시장에 대한 심층연구 활동도 필수적이다.

셋째, 무역관련 하부구조를 확충하여야 한다. 적극적으로 해외고객을 찾아나서기 위해 상설전시 홍보관, 해외물류센터 등 물적시설의 신설, 확충은 물론 고객 및 여론 형성층 주도층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의 관리, 관련기관과의 유대, 교류 등 인적 하부구조를 구축하고 확대하며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 활동이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수출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수출업무에 있어 한국이 가장 신경을 쓰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는 부분이 바로 사후관리 부분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의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본 바이어들이 한국 수출업체에 개선을 요망한 사항 중 클레임(claim) 처리의 철저가 14.4%로서 가격상 경쟁우위 제고(40.0%), 일본인의 선호도를 고려한 제품생산(22.2%)에 이어 세번째였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수출전담기구가 claim 처리의 1차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claim의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출(해외시장개척)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수출권을 부여하기 위한 심사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출업체 지원자금을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은 자금순환을 통해 농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민 직접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그 지원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볼때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상당한 유수효과를 나타내어 농산물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한국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광고활동을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주 수출시장인 일본은 물론, 미주, EU, 동남아시아, 중동지역에 대하여 한국산 농산물의 소개, 이미지 개선 및 구매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광고전략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 및 박람회에 적극 참가하는 것이 한국산 농산물의 소개 및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VI. 결 론

새로운 국제무역 환경으로 모든 것이 개방되고 노출된 지금 농업을 특수한 영역으로 규정하고 보호불가피론을 지상으로 삼는 시각을 버려야한다. 지금까지 국제화, 개방화라는 엄연한 현실에 적극 대응하는데 장애가 되는 고정관념으로 소농제의 신성불가침과 농산물의 비상품화론이 있는데 경쟁력을 도외시한 무조건적인 소농보호와 식량안보만을 내세워 농산물의 비상품화를 주장하는 것은 UR 협상이 타결된 지금 비현실적이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역사적, 정치적, 민족적, 정서적 관점에서 특수취급되어 왔으나 이제는 순수경제차원의 비교우위원칙 또는 경쟁우위원리에 따라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국제추세를 수용해야 한다. 즉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특별취급은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산업으로서의 농업은 생산효율제고, 품질의 향상 등에 역점을 두고 경제문제로 접근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농민도 과거처럼 운명적, 세습적으로 생업을 전승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보호와 보조가 어렵게 된 국제경쟁시대를 맞아 이제는 농민도 외국의 농업과 농산물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이를 한국 농산물과 비교, 연구하여 스스로 대책을 강구할 때이다.

불평과 체념, 의타심을 버리고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책임하에 농업을 영위한다는 기업가정신을 갖고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상업적 경영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농민은 생산은 물론 경영까지 스스로 계획하여 처리하고 책임지는 전문인이 되어야 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고객지향적인 생산, 판매, 연구개발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농민들의 이러한 자세와 의식변화가 이루어져야 정부의 농촌대책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농정은 쌀 등 주곡의 자급을 위한 생산위주와 소농보호, 그리고 선별지원보다는 일률적 지원에 치중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지금까지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었지만, 이제 국제경쟁력이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는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경쟁력 없는 품목의 계속적인 생산, 무조건적인 소농보호 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생산과 함께 판매(마케팅)에도 비중을 두고 경쟁과 효율적 논리에 따른 선별, 집중지원정책이 검토되어야 한다.

정책은 결국 선택이므로 정부가 모든 부문을 전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화 등 작금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선택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고 그 선택은 앞으로의 한국농업을 규정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시점은 수요, 즉 판매가 있어야 공급 즉, 생산에의 유인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국내 수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농업전반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수출을 적극 지원하여 수출을 통한 한국 농업의 활로를 찾아야할 때라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1993. 12.
 _____, 「UR 타결과 농정의 대응방안」, 1994. 1.
 _____, 「UR 이후 전략작목 선정과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1991. 12.
 _____, 「UR 이후 농산물 무역정책의 방향」, 1993.
 _____, 「농촌경제」 제16권 제3호, 1993. 가을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 라운드와 한국경제」, 1994. 2.
 농림수산부, 「농림수산 통계연보」, 각년도
 _____, 「농림수산 주요통계」, 각년도
 _____, 「농업기본 통계」, 각년도
 _____, 「농가경제 통계」, 각년도
 _____, 「UR 농산물 이행계획서 검증결과」, 1994. 4.
 _____, 「93 채소 생산 실적」, 1994.
 농수산물 유통공사,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출시장」, 1993.12.
 _____, 「일본의 주요 농수산물 수입 현황」, 1992.11.
 _____, 「농수산물 유통조사 월보」, 1993.12.~1994. 7.
 _____, 「농수산물 무역정보」, 1994. 5. ~ 9.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 1994. 8.
 _____, 「주간 해외경제」, 1994. 9.
 대한무역진흥공사, 「수출유망 농산물 해외시장」, 무공자료 91-68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1994.
 농정연구포럼, 「전환기 양정의 과제와 전망」, 1993. 8.31.

- _____, 「농지제도의 개선방향」, 1993. 9.30.
- _____, 「농업기반정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994.10.31.
- _____, 「한국 농업의 진로」, 1994. 1.31.
- _____, 「농정의 전환」, 1994. 2.28.
- 한국 농어민신문사,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추진방안」, 1994. 6.
- F A O 한국 협 회, 「세계식량농업백서」, 1992.
- 일본 무역 진 흥 회, 「농림수산물의 교역」, 1988.
- 김 인 철 외, 「한국 농민의 불안과 희망」, 1992.